

조건화된 자극/반응이 합리적이고 지능적일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불이 켜질 때마다 먹이를 기대하게끔 조건화된 원숭이에게 있어서 불이 켜질 때의 기대감은 이유에 반응한다는 의미에서 이성적이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 인도되는 인간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데에, 바로 이와 동일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인과적-기계적인 모델에서 우리가 어떻게 추리 혹은 규범적 인도를 발견할 수 있는지 반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흄이 설득력 있게 논변했듯이, 무한 소급에 빠지고 만다. 흄의 습성(custom)과 연합은 바로 이러한 자연주의적인 모델을 무한 소급으로부터 구하는 밑바탕이다.

【제80차】 Saving the Truth Schema from paradox
Harry Field(미국 뉴욕대학 교수)

「Q인 경우 오직 그 경우만 $\neg \text{Tr}\langle Q \rangle$ 」인 Q가 존재함을 보이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자기 자신이 참이 아님을 주장하는 역설적 문장이 이러한 Q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덧붙여, 만약 우리가 고전적인 참 이론을 받아들이면, 「 $\text{Tr}\langle Q \rangle$ 」인 경우 오직 그 경우만 Q(참 도식)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럼 결국 「Q인 경우 오직 그 경우만 $\neg Q$ 」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고전적인 논리학에서는 모순이다. 자 이

제 우리에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러한 Q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과 고전적인 참 이론을 포기하는 해결책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나는 고전적인 논리학을 포기하고 새로운 논리학을 받아들이는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이 논리학은 클리니(Kleene)의 강한 삼가 논리학에 새로운 조건 연결사(\rightarrow)를 추가함으로써 구성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 $Q \leftrightarrow \neg Q$ 」는 더 이상 모순이 아니다. 나는 이 논리학

및 고전적인 참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이론은 일관적일 뿐만 아니라 산수적으로 표준적인 모형을 갖는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다시 말해, ω -일관적임을 보임으로써) 이 논리학과 고전적인 참 이론이 “잘 맞음”을 보일 것이다. 비록 이 논리학은 단축(contraction)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어차피 커리의 역설을 피

하기 위해서 이는 필수적이며, 그 이외의 면에 있어서는 매우 강하고 자연스러운 논리학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rightarrow 는 충분히 끼워 넣어질 수 있는(fully embedable) 특성을 갖는다. 우리의 논리학은 비록 Q도 \neg 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는 우리 논리학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82차】 유학의 생태주의적 전환

Wei-ming Tu(미국 하버드대학 교수)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도 우리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에는 세계적 종교 전통의 정신적 자원을 선택적으로 ‘회복’하고 분별력있게 ‘재수용’할 것이 요구되며, 역사적인 생명력을 가진 종교적 전통들은 항상 오랜 시간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겪어왔는데, 이 변화들은 경제, 정치, 사회 및 문화적 영향에 의해 생겨난 결과였다.

오늘날 모든 기축시대의 문명들은 현대의 다중적 도전에 대응하면서 독특한 형태의 자체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는 점증하는 환경의 위기에 비추어 현대 세계의 발전 궤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방향의 제시에 유학전통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유학적 인문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려는 사조가 발생했다.